



민주당 전남지역 의원과 새누리당 경북지역 의원 모임인 '동서화합포럼'이 15일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회화하는 등 동서화합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

여야·영호남 따로없는 '화합의 하의도'

새누리 경북의원·민주 전남의원 모임 '동서화합포럼' DJ 생가 방문

새누리당 경북지역 의원과 민주당 전남지역 의원의 모임인 '동서화합포럼'이 15일 신안군 하의도에 있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아 회화하는 등 동서화합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병석 국회의장·최경환 원내대표·김태환·장운석·정희수 의원 등 경북 지역구 의원과 민주당 박지원·이낙연·주승용·김성곤 의원을 비롯 전남 지역구 의원 등 20명은 이날 오전 김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 영정에 헌화하고 생전의 사진을 둘러본 뒤 생가 방문 행사를 열었다.

방문 행사를 주관한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이윤석 의원은 환영사에서 "과거에 매달려 갈등을 심화시켰지만 오늘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생가에서 민주화 업적을 기리고 3월에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서 산업화를 기릴 것"이라며 "동서화합포럼이 한국사회 전반에 만연한 갈등을 치유하고 진정한 화합을 이루는 데 작은 밑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지 않고는 선진국으로 갈 수 없다"며 "우리 당의 뿌리는 경북이고 민주당은 전남이지만, 뿌리부터 화합하고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데 앞장서자"고 화답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건립을 추진해 이미 화해했다"며 "하의도 주민의 숙연한 연료교 사업도 추진된 것"이라고 밝히 박수를 받았다.

이병석 국회의장은 "대통령을 제대로 평가하는 우리의 희망찬 발걸음이 국민 대통합의 소망을 이루는 힘이 될 것"이라며 "김대중 대통령 생가 방문이 오는 3월 박정희 대통령 생가 방문으로 이어져 동서화합과 국민대통합의 역사를 이루는 첫걸음이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마친 의원들은 생가 옆 들에 50년생 홍매화를 심고 기념석을 제막했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중앙정치 실종에 지방선거 표류

중앙정권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6·4 지방선거가 표류하고 있다. 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개입의 룰'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지방선거 입지자들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기간 동안 해야할 홍보 방침도 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음달 4일인 예비후보자 등록일까지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그 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여야가 함께 지난해 대선국면에서 공약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새누리당이 공약과기 방침을 정한데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누리당이 공약 파기 비난을 피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안을 제안해 논란만 거듭되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반대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교육감선거제도도 여야 간 입장차

기초선거 정당공천
교육감 선거·선거구 조정
여야, 쟁점마다 대립

5개월도 안 남았는데
룰 못 정해 입지자 애간장

가 너무 크다. 새누리당은 정당 공천을 배제한 현행 교육감 직선제 대안으로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의 러닝메이트제나 공동등록제, 간선제나 임명제 등을 제안한 상태고, 민주당은 러닝메이트 등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고, 현행 직선제가 민주적 정통성이 있는 제도라면서 현행 틀을 유지하되 약점을 보완하자는 입장이다.

교육의원 선거 일몰제에 대한 대안 마련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0년 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

법에 의해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교육의원을 별도로 선출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 광역의원 수를 늘리는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시·도 교육청에 대한 예산과 정책 비판·감시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전히 안개 속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작업도 지방선거 입지자들을 혼란하게 하고 있다. 로 드맵은 고사하고 지방선거 전 창당할 지에 대한 결론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당에 대한 기대가 어느 지역보다 큰 호남지역의 경우, '안철수 신당'의 이름으로 출발을 희망하는 입지자들의 발을 묶어놓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당내 경선룰도 지방선거를 표류하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에서 사실상 경선방법을 확정했지만 당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여서 민주당 소속 입지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안철수 의원 측의 경우도

지방선거 전 창당을 한다면 하루빨리 공천방식을 정해야겠지만 당장 창당도 못한 상황이라서 먼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예비경선) 제안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날 말이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활동 마감 시한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여야가 주도권 싸움만 벌이다가 자칫 아무런 성과도 없이 특위활동이 막 내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15일 "여야가 쟁점마다 공행선을 달리면서 결국 논의가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정개혁위 활동 시한을 연장할 수는 있었지만 이처럼 쟁점을 찾기가 힘들다면 또다시 중앙정치권이 시간만 끌면서 지방선거 입지자들을 괴롭히는 상황이 2월에도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지방선거 대비 대대적 당직 개편

최고위원 정균환·사무총장 노웅래...새정추는 추진위원 8명 영입 '맞붙'

야권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대적인 조직 정비를 하는 등 지방선거에 승부수를 띄우고 나섰다.

민주당이 15일 당 조직 개편을 단행하자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도 추진위원을 발표하는 등 야권이 조직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지방정치 최고위원에 정균환 전 의원, 사무총장에 노웅래 의원을 임명하는 당직 개편을 단행했다.

또 비서실장에 김관영 의원, 전략홍보본부장에 최재천 의원, 전국직능위원회 수석부장에 이상직 의원을 각각 임명했고 기획위원장은 최원식 의원을 영입시켰다.

대변인단도 대거 교체했다. 수석대변인에는 이윤석 의원, 대변인에는 박광온 전 홍보위원장과 한영에 의원이 임명됐다. 박용진 대변인은 홍보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는 김 대표가 밝힌 지방선거 필승의 각오를 뒷받침

하는 것"이라며 "전략 라인의 쇄신과 홍보라인의 새 얼굴 배치"가 특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또 호남 출신이 대거 인선되면서 '안철수 바람'이 거센 호남권에서의 '안풍'을 차 단하고 텃밭 사수를 위한 교두보 마련을 위한 포석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 측 신당 창당 준비기구인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도 이날 향후 정책 자문 및 홍보 활동을 담당할 전문가 출신의 추진위원들을 발표했다.

새정추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신동해빌딩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진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추진위원에 합류한 인사는 영화 '도가니'의 제작자 엄용훈씨와 투기 자본감시센터 장화식 대표, 전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김혜준씨, 세계 100대 의학자에 선정됐던 연세대 소아정신과 천근아 교수, 공공미술실처

작가이자 독립영화감독 최유진씨,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과대학 사공정규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생 안희철씨, 직업재활 전공 박사 정중규씨 등이다.

이들은 모두 사회·노동·문화·예술·학계 등에서 활동중인 전문가들로 현실 정치 참여 경력이 거의 없다.

장 대표가 유일하게 2001년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당 국회의원 후보로 서울 '동대문'에 출마한 경력 이 있을 뿐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014 학년도 **편입생 모집**
원서접수
2014년 **1. 6(월) ~ 17(금)까지**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062) 605-1114

http://www.hankooktea.co.kr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 10만평의 자기농장과 60년의 제다
총 7가지 기능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 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師의 차만 남품
名師의 高貴한 선물은 名師가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작설차
고품질 녹차
친환경다원
한국제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1
T. 222-2902, 3973

감농Set 다담Set 우전감로 감사Set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부산 차생원 051-256-7007-8